

2017년 상반기



해외출장 가이드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출장자료

【 목 차 】

I. 베네수엘라 개황	1
II. 정치 사회 동향	3
III. 최신 경제 동향	06
IV. 주요산업동향	10
V. 한 · 베네수엘라 경제교류	12
VI. 투자환경 및 입지여건	15
VII. 현지 체류 시 참고사항	16
VIII. 무역관 오시는 방법	21
IX. 현지 유관기관 및 식당	22
IX. 유용한 스페인어 및 참고사항	24





I. 베네수엘라 개황

1. 국가개요

국명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 (República Bolivariana de Venezuela)
위치	남미 / 카리브해 남쪽 및 브라질 북쪽 (북위 0° 38' 53" - 12° 11' 46" / 서경 59° 47' 30" - 73° 23')
면적	912,050 km ² (한반도의 4.1배, 남한의 9.1배)
기후	아열대성 (카리브해 인근 도시) / 열대우림 (내륙 아마존 유역)
수도	카라카스 (Caracas / 인구 395만 명)
인구	3,091만 명 (2016년 기준)
주요도시	Maracaibo(220만 명), Valencia(180만 명), Barquisimeto(120만 명) 등
민족(인종)	메스티조 (69%), 백인 (20%), 흑인 (9%), 인디오 (2%)
언어	스페인어
종교	가톨릭 (전 인구의 91%)
건국(독립)일	1811. 7. 5일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정부 형태	대통령 중심제
국가 원수	Nicolas Maduro 대통령(2013.3.8일 취임. 차기대선 2018.9월)
입법부	단원제 (167석 / 임기 5년. 차기총선 2020.12월)
정당	○ 여당(55석)-PSUV당(el Partido Socialista Unido de Venezuela-사회주의통합당) ○ 야당(112석)-MUD당(Mesa de Union Democrática-민주연합회의. 기존 야당인 AD당, COPEI당, PJ당, CN당, UNT당, PPT당 등 연합)
정부성향	민중 사회주의

자료: EIU, BCV(베네수엘라중앙은행), CIA World Factbook



2. 주요 경제 지표

GDP	U\$5,669억 (2016년말 기준. EIU 추정치)
실질경제성장률	-14% (2016년말 기준. EIU 추정치)
1인당 GDP	U\$12,265 (2013년말 기준. 세계은행 최신 통계)
실업률	615.5% (2016년 기준. EIU 추정치)
물가상승률	422.2% (2016년 기준. EIU 추정치)
외채	U\$1,099억 (2016년 기준. EIU 추정치)
화폐단위	Bolivar Fuerte(BsF.)
환율 (2016.7.20 기준)	(공식환율 Dipro) U\$1 = BsF.10.00(식품, 의약품, 원자재 수입시 적용) (공식환율 Dicom) U\$1 = BsF.717.43 (비공식 시장 환율) U\$1 = BsF.4,608.75
외환보유고	U\$ 109.88억 (2016년 기준. EIU 추정치)
교역규모 (2016)	o 수출 : U\$ 260.16억(석유가 95% 차지) o 수입 : U\$ 201억
주요교역품목	o 수출 : 석유, 메탄올, 철광, 알루미늄, 석유화학제품, 금 등 o 수입 : 의약품, 기계류, 철구조물, 식품, 철강제품 등
對한 교역규모 (2016년도)	o 한국의 수출 : U\$ 324백만 (-27.9%) o 한국의 수입 : U\$ 32백만 (+52.7%)
對한 교역품목	o 수출 : 플랜트, 철강제품,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가전, 석유 화학제품, 건설장비, 기계류, 의약품 등 o 수입 : 원유(중유), 철광, 알루미늄, 니켈광 등
투자교류 (2016 누계)	o 한국의 對베 투자 : 30건 U\$ 101백만 (신고금액) U\$ 67백만(투자금액) o 진출기업 : 삼성전자, LG전자, 세라젬, 현대건설 등 o 베네수엘라의 대한투자 : 4건 / U\$1,540천(2016년 누계)

자료: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베네수엘라 대외무역은행, EIU, KITA 등



II. 정치 사회 동향

1. 정치동향

☐ 정치현황 개요

○ 주요인사

- 대통령 : Nicolas Maduro, 부통령 : Aristobulo Isturiz Almeida
- 국회의장 : Henry Ramos Allup(야당측)
- 외교부 장관 : Delcy Rodriguez
- UN주재 대사 : Rafael Ramirez(전 석유광업부 장관 및 PDVSA 사장)
- 석유광업부 장관 겸 PDVSA 사장 : Eulogio Del Pino

☐ 2013.4.14 마두로 대통령 선거 당선

○ 차베스가 후계자로 지목한 니콜라스 마두로 여당후보(50.65%득표) 당선

- 차베스 사망 후 치러진 2013년 대통령 재선거에서 기존 정부 정책 유지 표명과 더불어, 차베스 신격화 작업 등을 통해 차베스 지지자들 겨냥한 대선 캠페인을 실시했음.
- 차베스 대통령 임기 중 2010년부터 추진된 200만 주택 건설 사업인 La Mision Vivienda를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표명함과 동시에, 국영방송을 이용한 차베스 신격화를 통해 차베스 지지자들을 응집하는데 성공함.

○ 야당통합후보 카프릴레스 라돈스키 (49.07%) 패배

- 2012년 야권통합후보로 선출된 엔리케 카프릴레스는 2012년 10월 7일 대통령 선거에서 차베스에게 패배한 후, 차베스 사후 2013년 4월에 치러진 대통령 재선거에서 여당 후보인 마두로에게 1.6%의 득표 차이로 다시 패배했음.

☐ 대선 이후 정치동향

○ 대선 이후 2013년 12월 지방선거에서도 여당(PSUV)이 승리하고, 야당은 43%의 득표를 얻는 데 그침.

- 선거전 베네수엘라의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야당은 선거에서 투표의 과반수를 얻을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여당의 승리로 이후, 차베스 이후에 자신의 권위를 세우지 못했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권력기반 구축에 도움이 됨.



○ 그러나, 2014년 2월 반정부시위 이후, 경제실패에 대한 국민의 불만 고조

- 정부의 외환통제 강화와 민간분야에 대한 외환공급 축소로 시장환율이 폭등하여, 2013년 56%의 살인적인 물가폭등과 식품 및 위생용품 등 생필품 부족현상이 심화되면서 2014년 2월, 대학생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규모의 반정부시위가 발생, 3개월 이상 지속되었음.
- 평화적인 시위에 대한 정부의 진압으로 일부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외국 정부의 중재와 정부-민간 대화재개 등으로 일시적인 소강상태에 들어갔으나, 야당 측은 2015년말 예정된 총선을 통한 여당 심판 추진

□ 2015년 4분기 총선에서 야당 압승

- 야당의 지리멸렬에도 불구하고, 물가폭등과 생필품 부족으로 정부지지율 급락
- 2015년 12월 6일 실시된 5년 임기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전체 167석 중 112석을 차지하여, 야당이 절대과반수(2/3)을 차지(이후, 대법원 헌법재판소는 야당 의원 중 3명에 대한 당선불인정 판결을 내려, 절대과반수는 차지하지 못함)
- 야당의 압승 요인으로는, 구심점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경제악화와 물가폭등, 생필품 부족, 치안불안으로 분석됨.

□ 정부·여당은 '16년 1월, 경제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비상정국 추진

- 경제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야당의 견제를 받지 않고, 경제정책 추진
- 정부와 여당은 기존 수권법의 만료와 여소야대 국회의 정부 경제정책 방해를 회피하기 위해, 2016년 1월, 경제비상사태를 선포
- 비상사태령은 국회의 비준거부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2016년 2월 12일부로 공식발효되어 정부는 국회 동의없이 경제적 조치를 자유롭게 취할 수 있게 되었고, 경제비상사태는 지속되고 있음

□ 반정부 시위로 인한 정국혼란 지속

- 2017년 3월 말 대법원의 의회의 입법권 기능 박탈 이후 시작된 반정부 시위는 5월까지 지속 중임. 총 600만명이 참가하고 최소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함.
- 야권 및 시위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연기한 지방선거 실시, 정치범 석방, 야권 지도자 (Capriles 미란다 주지사)에 대한 15년 피선거권 박탈조치 철회, 경제 위기 및 부패에 따른 대통령 사임을 주장하며 시위 지속
- 이에 따라 현 정권에 대한 지지율도 급락 하였으나, 마두로 대통령이 공권력을 장악하고 열성적인 지지자 집단이 있어 정권이 당장 무너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2. 대외정책방향

□ 중남미의 대표적 좌파 국가

○ “21세기 사회주의” 실현 추구

- 차베스 정부의 정치 이념이었던 “21세기 사회주의 실현”을 지속적인 정치이념으로 추구함과 동시에 미국 주도 국제질서에 반대하며 중남미지역 내 사회주의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해 미주를 위한 볼리바르 동맹(ALBA) 관계 또한 유지할 것으로 전망

※ ALBA : 쿠바, 니카라과,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 반미 사회주의 이념을 같이 하는 8개국으로 구성

□ 차베스 후계자로서 사회주의적 경제 노선 추구

○ 마두로 정부는 차베스 대통령의 정부 중심의 경제활동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함

- 마두로 대통령은 차베스 주의를 표명하며, 차베스가 추진해왔던, 빈민층 지원 사업과 쿠바, 니카라과 등 주변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퍼주기 식 지원 지속.

3. 한국과의 주요이슈

□ 유전 · 광물자원 · 플랜트 · 인프라 협력 가능성 지대

- 초중질유 포함 검증된 원유매장량 세계 1위(2,970억 배럴)
- 천연가스, 알루미늄, 구리, 금, 철광석, 다이아몬드 등 지하자원 풍부
- 전략광물 자주개발률 제고를 위해 베네수엘라 제철소 건설사업 등 추진
 - 비전통 에너지 · 자원 본격 개발을 위해 베네수엘라 오리노코 벨트 지역 개발

□ 우리 기업의 에너지 · 인프라 프로젝트 진출 확대

- 국영석유회사(PDVSA)의 Puerto La Cruz항 정유설비 확장공사 수주(현대건설)
 - 1차 30억불(2012.6월 계약), 2차 50억불(2014.11월 계약) 규모
- 이 밖에, 해저전력케이블(LS전선, 3억불), 산파이네스 정유공장(현대건설, 20억불), 가스정제플랜트(GS건설, 26억불), Pet-Coke처리플랜트(POSCO건설, 3억불) 수주
- 경제 · 금융협력(공동기금 또는 차관제공 등) 검토 필요
 - 베네수엘라는 공동기금 조성국 기업들에게만 프로젝트 입찰 기회를 주거나 경쟁 입찰일 경우 우선권을 주는 등 특혜 부여

III . 최신경제동향

1. 경제동향

▣ 베네수엘라 2016년 경제성장률 -14%

○ 2013년 3분기 이후 급락 추세 지속

베네수엘라의 GDP 경제성장률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GDP 성장률	-1.5%	5.0%	5.2%	1.3%	-3.9%	-5.7%	-14%

자료 : 베네수엘라 중앙은행(BCV), *EIU(추정치)

- 경제성장률의 마이너스성장은 정부의 식품 및 의료용품 수입 증대에도 불구하고, 수입용 외환 배정에 대한 통제로 인해 원자재의 수입이 크게 감소하여 제조업이 크게 둔화하였고, 완제품의 수입은 거의 중단된 상황에 따른 것임.
- 특히, 2014년 국제유가의 급락으로 석유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베네수엘라 경제가 더 큰 타격을 입고 있으며, 유가회복 또는 대체산업 활성화 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베네수엘라 인플레이션 422.2%로 사상 최악

○ 2014년 63.4%, 2015년 180.9%에 이어 2016년 422.2% 기록

- 주요 상승 원인은 외화부족>수입중단>물품부족 및 생산감소임.
- 그 밖에, 공식환율과 비공식 시장환율의 차이를 이용한 인근국에 대한 생필품 밀 수출이 횡행하는 현실도 물자부족과 가격상승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
- 한편, 정부의 밀수출 단속(콜롬비아 국경폐쇄 등)과 공정가격 단속으로, 민간기업은 의도적으로 생산을 줄이고 있는 상황임.

베네수엘라 물가상승률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물가상승률	27.4%	29.0%	20.1%	56.2%	63.42%	180.9%	422.2%

자료 : 베네수엘라중앙은행(BCV)



□ 三重환율: 공식환율(DiPro), 보완환율(DiCom) 및 비공식 시장 환율

- 마두로 정부는 정부공식(DiPro, 이전 Cencoex 또는 Cadivi)환율 외에 민간외환거래용 보완환율(DiCom, 이전 Simadi) 환율을 인정하고 있음.
- 정부공식환율(DiPro)은 2013년 4월 Sicad제도 도입 이후에는 정부 또는 공기업의 생필품(식품 및 의약품) 수입에 적용되어,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유지되고 있음. 이 환율은 기존 달러당 Bs.4.30에서 2013년 2월 Bs.6.30으로, 2016년 2월에는 Bs.10.00으로 평가절하되었음.
- 보완환율(DiCom)은 생필품 이외의 민간 무역거래에 사용되는 환율로, 이전에는 생산재 수입용 Sicad(달러당 Bs.12 수준)와 소비재 수입용 Simadi(달러당 Bs.200 수준)으로 나뉘었다가 2016.2월, DiCom으로 통합되어 운영(초기 달러당 Bs.200에서 2017년 5월 현재 달러당 Bs.717.43으로 크게 평가절하)됨.
- 동 제도의 성공여부는 베네수엘라의 유일한 외환공급자인 국영석유공사(PDVSA)가 시장에 달러를 공급하느냐에 달려있으나, 이전 환율체계에서는 정부의 공급량이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함에도 환율변동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통제해, 오히려 비공식 시장 거래환율의 급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온 바 있음.
- 정부로부터 달러획득이 어렵고, 출처를 밝히기 곤란한 자금은 비공식 시장환율로 거래
 - 베네수엘라 수입업체에 대한 외환배정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외환취득이 어려워진 수입업체나, 출처를 밝히기 곤란한 자금들은 비공식 시장에서 달러를 조달
 - 이에 따라, 정부의 외환공급이 줄기 시작한 2013년 이후, 비공식 시장에서 달러의 가치가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며, 시장에 대한 제품공급 축소와 비공식 시장환율로 수입된 제품의 가격상승, 환율변동의 심화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 감소 등 정상적인 시장경제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현재의 경제악화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음.
 - 정부의 외환공급 축소는 故차베스 대통령의 암투병 시기와 일치해, 부정부패의 확대와 선거 전후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의 확대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비공식 시장 환율은 2017년 5월 현재 달러당 Bs.4608 수준으로, 정부 공식환율의 460배에 달하며, 정부는 시장정상화를 위해 비공식 시장거래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음.

비공식 시장(평행)환율 변동 추이

연도(연말기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7월	2016.12월	2017.5월
정부공식환율	Bs.4.30	Bs.6.30	Bs.6.30	Bs.6.30	Bs.10.00	Bs.10.00	Bs.10.00
비공식 시장환율	Bs.11.0	Bs.60	Bs.200	Bs.1,000	Bs.1,000	Bs.3,000	Bs.4,608

자료: dolartoday.com(비공식 시장환율 조회사이트)



2. 대외무역

□ 유가하락한 2014년 이래 수출 및 수입량 감소

- 유가하락 이후, 분기당 수출액 20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수준으로 급감
 - 베네수엘라는 전체 수출에서 석유제품의 비중이 95%를 넘게 차지하며, 이에 따라 국제유가가 급락한 2014년 하반기 이후, 전체 수출액은 연간 800억 달러 이상에서 연간 300~400억 달러 수준으로 크게 줄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석유생산량 확대 외에 석유 이외 광물 등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수출액 감소로 외환사정이 악화되면서, 수입액 역시 크게 감소
 - 국내 제조업이 어느 정도 기능했던 2011년까지는 수입액이 350억 달러 규모를 유지했으나, 부품, 원자재의 수입이 어려워진 2012년 이후 550억 달러 규모로 확대
 - 2014년 유가하락으로 외환수입이 줄어들자, 2015년 수입액은 수출액과 유사한 규모인 분기당 100억 달러 규모로 크게 줄어들었음.
 - 수입품목의 경우, 기계류, 전자제품, 의약품, 철강, 자동차(부품), 플라스틱, 화장품, 의료기기, 식품 등의 순이며, 국가별로는 미국, 중국,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아르헨티나 순으로, 최근 들어 미국과의 교역은 감소하는 대신 중국과의 교역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중국과의 교역은, 중국이 부여한 차관 한도 내에서 중국산 물품을 수입하고 그 대금을 석유로 갚는 구상무역체제(China Fund)를 갖춘 이후, 해마다 차관 한도를 늘려가면서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베네수엘라의 무역수지

(단위 : US\$백만)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수 출	97,873	88,749	74,710	37,232	26,016
수 입	65,917	57,151	47,476	36,464	20,100
무역수지	31,956	31,598	27,234	768	5,917

자료원 : EIU



베네수엘라 경제에 대한 이해

석유산업이 곧 베네수엘라의 경제

하루 생산량 210만 배럴, 정유량 130만 배럴, 연 수출액 260억 달러, GDP의 10%, 전체 수출의 95%, 세계 5위의 정유회사.

베네수엘라의 석유산업과 관련된 수치들로, 간단히 셈을 해도, 배럴당 42불을 기준으로 할 때, 석유로 벌어들인 수입을 국민 숫자로 나누면 1인당 GDP 1,073불이 나온다. 그 외 건설업이나 제조업 등 다른 산업들 역시 석유로 벌어들인 수입을 투자함으로써 유지된다. 농업의 경우도 정부의 농기계 구입 보조금이 가장 중요한 수입원일 정도다.

베네수엘라 경제는 이렇게 석유로 벌어들인 부를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차베스 정권 이전에는 외국 메이저들의 비용부담을 통한 이익 빼돌리기, 여러 공공프로젝트에서의 공무원의 부정부패 등 일부 자본가 및 권력층의 석유이익 독점이 문제가 되었고, 이것이 차베스 정권이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차베스의 사회주의 정권은 석유이익의 일부를 서민층에게 되돌려주는 데 기여했지만, 무차별적인 분배로 인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받기도 하고, 기득권층에 대한 적대정책으로 고급인력이 빠져나가는 손실을 겪었으며, 새로운 권력층이 오히려 부정부패가 더 심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산업다변화의 갈 길은 요원

그래도 차베스의 집권 시절에는 국제유가가 사상 최고를 갱신하는 등 정부재정에 여유를 가지고 정책을 운영할 수 있었으나, 마두로 정권은 그런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2012년 정유소 시설 폭발 이후 정유생산량은 정체되고 있는 데, 국제유가는 2014년 하반기 이래 급락세를 보이면서 정부재정에 커다란 압박이 되고 있다.

세계경제의 석유의존도가 갈수록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됨에 따라, 베네수엘라 정부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당장은 정유량 확대(현대건설 등 우리 기업이 참여중)나 가스생산,

다른 지하자원 개발 등 성과가 확실한 프로젝트에만 매달리고 있다. 중장기 프로젝트를 벌이기에 정부재정이 부족하고, 2006년 자원국유화 조치 이후 신뢰를 잃어 전략적 파트너인 중국 이외에는 외국인투자유치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분배는 유지한 채 성장할 수 있을까?

기업가들은 수익을 재투자하는 데 매우 인색하다. 노동자에 유리한 법률체계, 기업가와 정부의 적대적인 관계, 그리고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볼리바르화의 평가절하 때문에 현지화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달러화로 바꿔 빼돌리는 게 더 현명한 것으로 인식된다.

제조업(부품수입)과 수입업은 외환유출의 합법적인 통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수입 수요는 항상 높은 편이다. 2003년 정부의 외환통제정책은 서류조작 등을 통한 기업의 달러유출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이 역시 부정부패로 인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재미있는 것은 매년 260억 불의 수입이 확실한 이상, 나라의 공간이 빈 것만큼 국민이나 기업가, 권력층의 소득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베네수엘라 경제의 아이러니이다.

외환부족, 비공식 시장환율 급등, 물자부족, 물가 폭등 등 베네수엘라 경제의 악순환에 대한 해법으로 유류가격 인상, 공식환율 인상, 서민보조제도 개선 등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고, 2016년 2월, 일부 조치가 전격 시행되기도 하였지만, 정권 지지층인 서민의 반발 때문에 정부의 선택이 쉽지 않다. 정부는 생산성을 늘려 파이를 키우는데 집중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에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사회주의 경제체제 포기하면 바로 회복

아직 정권교체를 얘기하기에는 이르지만, 사회주의 경제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그 때를 기다리며 해외에 쌓인 민간자본의 규모는 4,500억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 한 때 중남미, 아니 세계 최고의 소비시장이었던 베네수엘라 경제가 언제 회복될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IV. 주요산업동향

1. 석유산업

□ 석유산업, 베네수엘라 외화소득의 대부분 차지

- 세계 원유매장량 1위 베네수엘라, 2위 사우디 아라비아
 - 베네수엘라 석유 가채매장량은 2,965억 배럴로 전세계 매장량의 24.8%보유
- 연간 베네수엘라 전체 수출의 95% 담당
 - 베네수엘라 원유생산량 하루 평균 210만 배럴
 - 국가 GDP의 10.9% 차지

□ 국영석유기업 PDVSA

- 베네수엘라 유일의 국영석유회사
 - 석유산업 국유화 방안 공포와 함께 설립
 - 베네수엘라 국적의 모든 석유회사는 PDVSA 자회사
 - 에너지석유부의 감독을 받으며 산하 자회사의 활동에 대한 조정, 계획, 감독, 통제를 시행
 - 전체 예산수입의 75%, 지출의 20%를 담당하여, 작은 정부라 불림

□ 2017년도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전망

- 베네수엘라, 연간 310만bpd 생산 목표지만, 실제 생산량은 210만bpd로 추정
 - 석유부, 내수시장에 약 65만 bpd 공급하고, 250만 bpd를 수출할 것이라고 발표
 - 정부예산수립 기준은 배럴당 60불이지만, 이전에도 적자예산을 기록, 실효성 낮음
 - 2019년 일일 900만 배럴까지 생산량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이며, 적정유가 유지를 위해 OPEC 회원국 및 비회원국과의 공조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 중
- 베네수엘라, 석유의존형 경제구조 지속
 - 2012년 970억 달러에 달하는 석유수출을 통한 외환수입은 CADIVI 및 SICAD 외환으로 사용되며, 지속되고 있는 외환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시도하고 있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음.
 - 다른 기간산업의 마비로 석유산업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나 국제유가가 하락으로 외환부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2. 건설시장

□ 건축부문, 2014년 이후 성장세 감소

○ 베네수엘라 건축부문 2012년 가파른 성장세 이후 침체

- “서민주택건설” 프로젝트 등 건설 부문이 2012년 20% 대의 높은 성장률 기록
- 원자재 공급이 정부주택건설프로젝트와 같은 정부계획에 우선 할당되면서 민간 건설부문 침체
- 하지만 이는 2012년 10월 대통령 선거 전 포폴리즘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이후에는 정부재정 부족으로 서민주택 건설 사업이 제대로 지속되지 못한 결과, 건설 시장 역시 침체했음.

3. 자동차시장

□ 베네수엘라 자동차 시장, 외환미지급으로 부품수입중단돼 생산 급감

○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인플레이 억제책의 일환으로 자동차 가격도 통제

- 마두로 대통령은 현지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에 공정한 가격(부품수입시 SICAD로 외환특혜 부여)을 매기고, 중고차 가격도 공정가격보다 더 받을 수 없다고 밝혔음. 자동차생산자가 직접 구매자들에게 자동차를 팔게 될 것이며 향후 생산공장에서 명시한 차량의 생산가격에 비용을 가산하여 판매 시 그 누구도 판매가격이나 수수료를 협상하거나 조절할 수 없다고 함.
- 그러나 자동차 제조업체는 판매 후 획득한 현지화의 본사 송금가능성이 낮아 차량 생산이 급격히 감소(제조업 중 가장 큰 비중 차지)하였으며, 시장에서는 생산량 증대 없이 가격만 규제하는 것으로는 차량가격 상승을 막을 수 없어 오히려 차 가격은 훨씬 더 치솟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베네수엘라 자동차 판매 총괄

(단위: 대)

연도	현지 조립차	수입차	합계	증가율
2007(역대최대)	155,534	336,365	491,899	43.3%
2009	110,015	26,502	136,517	-49.7%
2011	103,011	17,680	120,691	-3.6%
2013	72,689	26,189	98,878	-24.3%
2014	23,122	585	23,707	-76.0%
2015(1~9)	14,104	102	14,206	5.9%

자료원 : 자동차협회(Cavenez) * 15년 이후 통계 미발표



V. 한국 · 베네수엘라 경제교류

1. 한국의 對 베네수엘라 수출입동향

□ 2016년 수출액 US\$ 3.24억 달러로 전년 대비 27.9% 감소

- 수출의 경우, 자동차부품 및 엔진의 수출이 연간 3억 달러 수준에서 2013년 이후 1억 달러 밑으로 크게 감소. 2015년에는 그림 제품과 본격적인 플랜트 공사에 따른 기계류 수출 증가가 원인이 되어 90% 이상 증가. 2015년 마가리타 섬 해저케이블 매설사업이 종료되면서 기자재수출 감소로 -27.9% 감소 기록
- 베네수엘라 정부의 수입대금 외환배정(Cencoex) 통제와 공산품의 자국생산장려 정책에 따라, 완제품의 수입은 최근 거의 중단됨. 특히, 완성차의 경우, 2007년 9억불을 정점으로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2012년부터는 거의 수입되지 않는 상황이며, 대신, 현지 GM 조립공장(GM대우자동차를 주로 조립생산)에 대한 자동차부품의 수출은 증가하여 왔는데, 이마저도 2013년에는 정부의 외환배정 축소로 약 40%가 감소하였고, 2014년에도 GM 조립공장이 부품재고 부족을 이유로 장기간 조업축소에 들어가면서 수출량은 더욱더 감소함.
- 공산품 제조업의 원자재로 사용되는 합성수지, 기타 석유화학제품, 철강판 등의 경우에는 우리 기업의 현지 건설공사 수주 확대와 현지 자체공급 부족에 따라 수출량이 크게 증가
- 한편, 가전제품의 경우, 2014년부터는 휴대폰이나 태블릿PC, 노트북 등 한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가 확대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외환부족으로 물량이 미미한 실정임. 전선 및 철구조물의 경우는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가설공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높은 수출을 기록
- 2015~2016년 수출통계의 특이사항으로는 현대건설의 정유소 건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정유설비 등 화학기계류와 철골 구조물의 수출이 크게 증가한 점을 들 수 있음.
- 수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간 1억 달러 수준으로 꾸준히 수입되던 석유 및 천연가스 관련제품의 수입이 2013년, 2014년에 급감한 이후 다시 소폭 증가한 것이 원인이 되어 2015년 40% 증가. 2016년은 알루미늄과 수입으로 52.7% 증가 기록
- 베네수엘라 Orinoco산 중질유의 경우 중동산 원유에 비해 품질이 낮아 우리나라의 정유시설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한국의 對 베네수엘라 연도별 수출입

(단위: US\$ 천)

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17년 (1~3월)	21,900	-53.7	4,376	-15.5	17,524
2016년	324,023	-27.9	31,710	52.7	292,313
2015년	449,476	90.5	20,768	39.0	428,708
2014년	235,884	-46.7	14,936	-70.8	220,948
2013년	442,905	-15.3	51,113	-55.4	391,792
2012년	522,945	-14.9	114,665	-16.4	408,280
2011년	614,683	-4.5	137,153	10.1	477,530
2010년	643,537	82.1	124,549	307.5	518,988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對 베네수엘라 품목별 수출실적 (MTI 코드 기준)

(단위: US\$ 천,%)

순번	코드	품목명	2015년		2016년 (12월)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총계	449,476	90.5	324,023	-27.9
1	9210	그림	231,537	0.0	169,319	-26.9
2	6141	철강관	10,953	2,503.7	25,518	133.0
3	7290	기타산업기계	10,004	2,533.4	14,789	47.8
4	7420	자동차부품	19,855	-59.4	13,114	-33.9
5	8153	자동제어기	813	10,981.4	9,253	1,038.7
6	6133	냉연강판	2,814	-43.0	8,628	206.6
7	6161	철강재용기	7,832	229.3	8,165	4.2
8	8415	전선	4,784	-89.6	6,233	30.3
9	6152	철구조물	4,975	-80.5	5,433	9.2
10	8411	발전기	3	0.0	5,400	154,449.2
11	7411	승용차	497	-81.4	4,671	840.0
12	7522	수공구	2,299	9,271.1	4,187	82.1
13	7512	밸브	6,959	268.3	3,888	-44.1
14	7412	화물자동차	3,082	2,019.0	3,511	13.9
15	2262	의약품	10,478	316.6	3,249	-69.0
16	8421	제어용케이블	4,291	131.8	2,289	-46.7
17	8151	계측기	1,015	199.9	2,180	114.8
18	8423	전원장치	469	419.1	1,798	282.9
19	8413	접속기 및 차단기	148	-81.6	1,757	1,085.5
20	6172	주철	2,106	38,562.1	1,637	-22.3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對 베네수엘라 품목별 수입실적 (MTI 코드 기준)

(단위: US\$ 천,%)

순번	코드	품목명	2015년		2016년 (12월)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총계	20,768	39.0	31,710	52.7
1	6211	알루미늄괴및스크랩	3,930	11.4	15,898	304.5
2	1350	LPG	0	0.0	10,002	0.0
3	1339	기타석유제품	0	-100.0	2,101	0.0
4	0413	갈치	0	0.0	1,779	0.0
5	6221	동괴및스크랩	0	0.0	1,538	0.0
6	0152	초코렛및코코아조제품	51	166.9	76	48.9
7	1190	기타금속광물	1,310	161.7	64	-95.1
8	5181	안경	0	0.0	47	0.0
9	6171	주단강	0	0.0	39	0.0
10	6184	고철	102	-13.2	35	-65.8
11	2529	기타종이제품	10	0.0	33	228.6
12	1290	기타비금속광물	0	0.0	19	0.0
13	0157	주류	9	4,338.6	12	34.4
14	4412	직물제의류	0	-53.4	10	4,803.0
15	0125	견과류	7	-36.6	8	27.7
16	4414	의류 약세서리	4	20,858.8	7	109.6
17	7122	운반하역기계부품	1	0.0	7	438.9
18	6141	철강관	0	0.0	6	0.0
19	8128	무선통신기기부품	9	0.9	5	-47.0
20	7351	토지측량기	0	0.0	4	0.0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VI. 투자환경 및 입지여건

1. 투자현황

- ☐ 한국의 對베네수엘라 투자는 '16년말 누계기준 약 6,665만 달러로 투자진출이 활성화된 단계는 아님
- 업종별로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89.9%)을 차지
- 2012년 국영석유회사(PDVSA)의 정유설비 확장공사의 우리기업 참여로 현대건설 및 2개 기업이 설립됨.
- 기 투자업체 중 포스코건설,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지점을 폐쇄하였으며 삼성전자, LG전자는 주재원을 철수하는 등 경제위기에 따른 철수 가속화 중
- ☐ 베네수엘라의 對韓 투자는 1.5백만 달러로 미미한 수준 ('11년말 누계기준)
 - 주요 투자업종은 서비스업 100% (도·소매 유통업 100%)

한·베네수엘라 연도별 투자 현황

(단위: 천달러, 건)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누계*
對베 투자	금액	-	-	-	-	1,023	-	9	140	99,837
	건수	-	-	-	-	3	-	1	3	15
對韓 투자	금액	960	-	-	190	-	-	-	-	1,540
	건수	2	-	-	1	-	-	-	-	4

*주 : 對韓 투자('00년~'12년), 對베 투자 ('68년~'10년)

對베 투자의 경우 2011년 이후 통계없음.



VII. 현지 체류시 참고사항

1. 출입국

☐ 비자 : 무비자 입국 가능

- 일반여권 : 베네수엘라 정부는 '05.4.29일 관보를 통해 한국국민이 관광목적으로 입국시 90일 범위 내에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함. 일부 항공사 등에서는 담당자의 부주의로 인해 입국비자 취득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사례가 있으나 한국은 무비자국가임을 설명하면 문제없이 입국됨

☐ 세관

- 세관 통관이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엄격한 편인데 일단 여행용 짐은 최종 세관통과 모두 X-Ray 검사를 받아야 함. 이 때 과도한 샘플이나 복잡한 소형 전자.기계 부품이 있을 경우 세관원을 설득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바 인보이스와 제품설명서(카탈로그 등)를 부수적으로 지참할 것
- 카톤박스 등으로 들고오는 경우 음식물 또는 상업용 물품으로 생각하고 전수 조사를 할 확률이 높으므로 샘플은 가급적 여행용 가방에 넣는 것이 좋음.

☐ 출국

- 현지에서는 미국 방문자가 많고 현지 항공사의 과도한 비행기표 판매가 종종 발생하므로 늦어도 비행기 출발 3-4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 필요
 - 미국행은 비행기 출발 4시간 전
 - 기타 해외출국은 비행기 출발 3시간 전
 - 귀국시 미국을 경유할 경우 미국 국적 항공사 직원은 상당히 불친절하고 과도한 검색으로 불쾌한 감정이 들 수 있으나 항의하지 말고 차분하게 응대할 것

☐ 황열병(Yellow Fever) 예방접종

- 평상시에는 불필요하나 인접국에서 입국하거나 베네수엘라 내 각종 국제행사가 열리는 시기에는 예방접종을 필요로 할 수 있음.



2. 교통

☐ 택시

- 일반 택시(흰색)는 시내 아무 곳에서나 탈 수 있음. 치안문제상 근거리의 경우 호텔에서 콜택시나 호텔택시를 이용
- 요금은 탑승 전 사전홍정
 - 기본요금은 Bs. 80 (약 U\$0.50)이며 시내의 짧은 거리는 2000~4,000 Bs(1달러 내외) 수준임. 팁은 주지 않으며 영수증 또한 없음. (호텔택시는 영수증을 손으로 수기하여 제공하지만 일반택시는 영수증이 없음)
 - 시내에서 공항까지 전반적으로 20,000Bs(U\$10)를 요구하고 있으며 홍정에 따라 조금 저렴할 수 있음. 안전을 위해 예약택시를 이용할 경우 지연시간에 따라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 ※ 택시이용시 간혹 자가운전자가 택시임을 강조하면서 승차할 것을 요청할 때가 있으나, 절대 탑승하지 말 것

☐ 지하철, 시내버스

- 지하철은 시내에 3개 노선이 있고, 버스도 운행되나 안전상 이용이 권장되지 않음.

3. 전화 이용 : Collect Call 없음

- 카라카스 → 한국
 - 00(국제전화 코드) + 82(한국) + 2(서울) + XXX - XXXX(개별 전화번호)
 - * 통신공사(CANTV)의 해외통신사에 대한 요금미납으로 발신불가 상황 지속 중임
- 한국 → 카라카스
 - 001(국제전화 코드)+58(베네수엘라)+212(카라카스)+XXX-XXXX (개별 전화번호)
- 카라카스 시내 전화 : 시내번호(0212)는 누르지 않고 개별 전화번호 누름
 - 핸드폰으로 일반전화를 거는 경우 시내번호(카라카스) 0212를 눌러야 하며, 통신회사에 따라 0414, 0416, 0412를 눌러야 됨
- 공중전화 : 전화카드(Tarjeta de teléfono)를 이용할 수 있지만 단기간 체류하고 시내만 통화할 경우 호텔에서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비공식 시장환율로는 매우 저렴)임.
- 국제전화 : 전화카드를 구매하여 지구본 표시 있는 공중전화에서 통화할 수 있지만 사용가능한 전화기를 시내에서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용이 곤란함.



4. 기후

- 1년 내내 22℃-25℃의 초여름 날씨이며 계절의 변화가 거의 없으므로 복장은 반팔도 무방하나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춘추복 양복을 권유함.
- 우기(5-11월)에는 밤에 20℃ 이하로도 내려가므로 긴팔을 준비하면 좋음.

5. 환전 및 물가

- '03.2월 베네수엘라 외환통제 실시 후 공식환율과 실제환율간 차이가 상당함.
 - '17년 5월 기준 공식환율 U\$1=10.00Bs, 비공식 시장환율 4,600Bs 수준임
- 공항, 호텔 및 일반 환전소에서 환전 가능하나 DiCom환율(달러당 Bs.700 수준)을 적용하여 환전하며 수수료도 청구하므로, 이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여행자 수표는 통용되지 않음.
- 비공식 시장 환율로의 환전은 한국식당, 중국식당 및 중국식품점에서 가능함.

6. 호텔

☐ Gran Melia Caracas

- 카라카스 시내 최고급 호텔인 Gran Melia 호텔(무역관과 협약 체결)의 1박 숙박료는 U\$50-60 내외임(조식, 세금 포함/싱글기준, 시장환율 기준)
 - 더블의 경우 US\$ 80(조식, 세금 포함. 시장환율 기준)
 - 숙박시 에티켓으로 매일 US\$ 1달러 상당의 팁을 베개에 두고 나오시기 바람
- Gran Melia 호텔의 경우 룸에서 개별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는 1일 U\$ 3달러 (부가세 포함) 수준임.
 - 호텔에서는 가급적 전화나 비즈니스센터 이용을 자제하시고, 특히 이용 후에는 현금으로 지불 완료하시기 바람 현금 없을 경우 방 번호를 통지할 것
- 호텔연락처 : Gran Melia Hotel
 - 주소 : Av. Casanova c/El Recreo, Urb. Sabana Grande, Caracas
 - Tel : (58-212) 762-8111, Fax : (58-212) 761-3411
 - Homepage : www.solmelia.com

□ Hotel Palace

- 카라카스 시내 고급호텔인 Hotel Palace 호텔(무역관과 협약 체결)의 1박 숙박료는 US\$ 70 내외임(조식, 세금 포함/싱글기준, 시장환율 기준)
 - 더블의 경우 US\$ 80(조식, 세금 포함, 시장환율 기준)
 - 숙박시 에티켓으로 매일 US\$ 1달러 상당의 팁을 베게에 두고 나오시기 바람.
 - Hotel Palace 호텔의 경우 무료로 룸에서 개별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음.
- 호텔연락처 : Hotel Palace
 - 주소 : Av Luis Roche con Av. Francisco Miranda, Altamira, Caracas
 - Tel : (58-212) 771-1000
 - Homepage : <http://www.caracaspalace.com/Home.aspx>

7. 전기규격 : 110V, 60Hz

- 전기 콘센트가 한국과 상이하므로 사용가능한 콘센트 지참(현지 구매 곤란)



8. 의약품

-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구급약을 구할 수 있으나 2015년 초부터 의약품 품귀현상이 발생, 개인체질에 따라 간단한 상비약을 한국에서 준비하면 좋음.
- 현지에서 열이 나고 몸살이 날 경우 아스피린은 절대 섭취하지 말고 타이레놀 계열의 약을 섭취할 것(*현지 유행병인 뎅기열과 아스피린은 상극임)

9. 통역

- 현지는 유학생이 전무하며 거의 대부분이 사업하는 교민임.
- 통역가능 인원은 3명에서 최대 5명에 불과하며 개인의 사정에 따라 통역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어 가급적 영어-스페인어 통역을 활용하시기 바람
 - 2일 연속으로 통역할 수 있는 인원은 없으며 하루만 사용할 경우에도 10일 전에 예약을 해야 함



10. 치안 및 관광

- **치안** : 테러, 반정부 게릴라 등은 없으나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전환되는 가운데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사실상 총기제한이 없어 권총강도 사건이 빈번함.
 - 만일의 경우 강도를 만났을 시 당황하지 말고 순응하는 것이 현명함. 저항시 인명 피해가 발생함
 - 개별 행동시 극도의 주의 필요함.
- **관광** : 베네수엘라 해변은 카리브 연안이나, 주요 관광지가 카라카스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자동차로 여행할 만한 추천지역이 소수임.
- 당일 코스로는 아래와 같음
 - 아빌라 마히까(ÁVILA MÁGICA) 국립공원 : 카라카스내 아빌라산 정상까지 곤돌라를 타고 등반, 3~4시간 코스로 볼 수 있는 곳임. 식당과 토산품점, 실내 아이스링크장이 있음.
 - 콜로니아 토바르(Colonia Tovar) : 독일마을로 유럽식 풍경을 즐길 수 있음. 승용차로 편도 2시간
 - 모로코이(Morrocóy) : 카리브해 해수욕장 및 섬. 승용차로 편도 4시간 (새벽 5시경 출발 필요)
- 1박 이상 여행코스
 - 초로니(Choroni) : 절벽을 끼고 있는 조그만한 해수욕장. 승용차로 편도 3시간
 - 뿌에르토 라 크루스(Puerto La Cruz) : 카리브 해수욕장 및 섬 (동쪽 바다) 승용차로 편도 5.5시간
 - 로스로게스(Los Roques) : 카리브해 상의 산호초섬. 비행기 40분 소요 (사전예약 필요/패키지 투어시 당일 1인당 500달러 내외)
 - 카나이마(Canaima) : 베네수엘라 남부의 거대한 원시림으로 떼뿌이(Tepui) 라는 독특한 지형이 산재해 있음. (엔젤폭포(Salto Angel)도 위치해 있으나, 최소 4일 소요)
 - 메리다(Merida) : 안데스 산맥의 민속관광지 (최소 4일)
 - 인근국(아루바, 본아이레, 꾸라사오) : 네덜란드령으로 세계적 휴양지
- 시내나 시외 관광시 국가경비대(GN/Guardia Nacional)의 검문이 자주 있으므로 필히 여권지참 요망

VIII. 무역관 오는 방법

1. 카라카스 무역관

○ 명칭

- 영문 : Korea Trade Center, Caracas
- 스페인어 : Oficina Comercial de la Embajada de Corea

○ 주소 : Av. San Juan Bosco, Edif. Centro Altamira, Piso Mezz. M-6
Altamira, Caracas, Venezuela

○ 전화 : (58-212) 750-2215/2216/2217

○ 팩스 : (58-212) 750-2218

○ 이메일 : kotracaracas@hotmail.com

○ 무역관장 : 유성준 관장(HP 0414-334-3400) / 전상호 대리(0424-272-9175)

○ 현지직원 : Mr. Luis Beltran, Mr. Walter Ruffini

♠ 무역관 위치

- 무역관이 위치한 Altamira는 경제중심지로 은행, 기업, 외교공관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근처에 Plaza Altamira 지하철 역이 있음.
- . Altamira 광장에서 북쪽(Avila산 방향)으로 두 블록 떨어져 있으며, 1층에 Banco Provincial이 있음. 출입구로 들어와서 M층으로 올라오면 찾을 수 있음.



<구글맵 좌표> 10.499074, -66.850121



IX. 현지 유관기관 및 식당 안내

1. 대사관 및 주재상사

○ 주 베네수엘라 한국대사관 (황경태 대리대사)

- 스페인어 : La Embajada de Corea (라 엠바하다 데 코레아)
- 주소 : Centro Lido, Torre B, piso 9, oficina 91 y 92, Av. Francisco de Miranda, El Rosal, Caracas, Venezuela
- 전화 : (58-212) 954-1270/1139/1006 팩스 : (58-212) 954-0619
- 홈페이지 : ven.mofat.go.kr
- 이메일 : venadmi@net-uno.net

○ 삼성전자 (법인장 -공석-)

- 주소 : Torre EdiCampo, Piso 7, Ofic. 73/74, Campo Alegre, Av. Francisco de Miranda, Caracas, Venezuela
- 전화 : (58-212) 264-2855/5151/7821 팩스 : (58-212) 266-6069
- 홈페이지 : www.samsung-latin.com
- 이메일 : albt0219@samsung.com

○ LG전자 (법인장 백석희)

- 주소 : Av. Francisco de Miranda, Urb. Los Palos Grandes, Edif. Parque Avila(Torre HP), Piso 6, Ofic. 6B-1 y 2, Caracas, Venezuela
- 전화 : (58-212) 208-1275, 208-1200 팩스 : (58-212) 285-4814
- 홈페이지 : <http://www.lge.com.ve>

○ 현대건설 (지사장 이용구)

- 주소 : Av. Principal de la Castellana, Torre banco Lara, Piso 6, Oficina D-1, Castellana, Caracas, Venezuela
- 전화 : (58-212) 261-5060
- 팩스 : (58-212) 266-4403



2. 레스토랑

○ Din Din (유일의 한국식당 / 사장 김태현)

- 주소 : 1ra Av. con 1a Transversal, Los Palos Grandes, Edif. Quinora, Local A-SS, Caracas
- TEL : (58-212) 285-4853 - 핸드폰: (58-414) 154-9608
- 이메일 : piovelee@hanmail.net
- 메뉴 : 비빔밥, 불고기, 오징어볶음, 제육볶음, 김치찌개, 매운탕 등

○ AVILA TEI (일식)

- 주소 : Edif. Centro Coinesa, PB, Local 1, Av. San Felipe, Castellana, Caracas
- TEL : (58-212) 263-0806/1520
- 추천메뉴 : 점심세트(lunch 박스), 라멘

○ FUGU(일식)

- 주소 : Calle La Trinidad, Edif. Canaima, Urb. Las Mercedes, Caracas
- TEL : (58-212) 993-5647
- 추천메뉴 : 나베야끼 우동

○ 식당명 : Casa Deli (중식)

- 주소 : Av. Santa Clara casa Anceros, nivel pb, Urbanización El Bosque. El Bosque - Caracas
- TEL : (58-212) 731-0332 / 731-1428



IX. 유용한 스페인어 및 참고사항

1. 유용한 현지어 표현

- 안녕하세요? (아침인사) - Buenos Dias (부에노스 디아스)
- 안녕하세요? (오후인사) - Buenas Tardes (부에나스 따르데스)
- 안녕하세요? (저녁인사) - Buenas Noches (부에나스 노체스)
- 감사합니다. - Gracias. (그라시아스) / 실례합니다. - Perdón (빠르돈)
- 계산서를 주세요 - La cuenta, por favor (라 꾸엔따 뽀르 파보르)
- 물좀 주세요. - Agua, por favor (아과 뽀르 파보르)
- 얼마입니까? - Cuanto cuesta? (판또 꾸에스타)
- 어디서 오셨습니까? - De donde vino? (데 돈데 비노?)
- 앉으세요. - Sientese. (씨엔페세)
- 잠깐만 기다리세요. - Espere un momento.(에스페레 운 모멘토)
- 알겠습니다. - Entiendo (엔띠엔도) / 천만에요. - De nada (데 나다)
- 잘 모르겠습니다. - No lo se. (노 로 세)

2. 참고사항

- 팁 관행
 - 공항이나 호텔에서 포터가 짐을 옮겨줄 경우 큰 여행용 가방 1개당 500볼리 정도
 - 음식점에서 계산서에 서비스료 10%가 가산되어 나오지만 추가 봉사료로 음식값의 2-3% 정도를 식탁에 놓고 오는 것이 관행임
- 쇼핑장소
 - 카라카스 시내에 있는 SAMBIL 대형 종합쇼핑몰은 고가 상품과 다양한 상품을 갖추고 있는 백화점으로서 고품질의 선물을 구입하기에 좋은 장소이며 그 외의 백화점으로 C.C.C.T, Beco, Lider, Tolon 등이 있음
 - 베네수엘라의 전통공예품을 구입하기에 적당한 장소로는 HATILLO가 있는데 카라카스 시내에 위치하고 있고 약 30개의 전통공예품 상점이 밀집해 있음.
 - 한국인 기호에 맞는 특산물 또는 추천할 만한 쇼핑장소는 별로 없으며, 선물용품으로는 공항에서 초코렛을 구입(현지화 현금으로 지불)하면 좋음.
- 긴급 전화번호 (*스페인어 사용 가능자에 한함)
 - 화재신고 : 166 / 경찰 도움요청 : 160, 169 / 앰블런스 : 545-4545 / 교통사고 : 167

♣ 끝 ♣